

3AM

S#1. 호윤의 방 (밤)

호윤이 거울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한다. 호윤의 옆으로 옷가지들이 널려있다. 호윤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자리를 뜬다. 호윤이 주방으로 가서 와인잔에 와인 두 잔을 따른다. 호윤이 침대 옆 테이블에 와인과 음식들을 세팅한다. 호윤이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불을 끄고서 침대에 가 눕고 눈을 감는다. 가만히 있다가 움찔거리는 호윤의 손. 괴로워하는 듯한 호윤의 얼굴 클로즈업. 탁상 위의 시계가 3시가 되고 일순간 눈을 뜨는 호윤. 호윤의 앞에 사람의 형체가 서있다. 호윤이 미소 짓는다.

호윤: 오늘은 무슨 노래 틀까?

하린: 오늘 노래는 별로-

하린이 호윤의 침대 밑 쪽으로 가서 창 밖을 바라본다.

하린: 이 집은 야경이 예뻐서 좋아.

호윤이 하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자 하지만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다.

호윤: 얼굴 보고 싶어, 이쪽으로 와줘. (간절한 목소리로)

하린: 옷 처음 보는 거네. 새로 샀어?

호윤: 응, 이번에 새로 샀어.

하린: 예쁘다.

호윤: 비슷한 걸로 몇 개 더 살까?

하린: 그럼 별로일 거 같아.

호윤: 그럼 다른 거 또 찾아볼게.

하린이 침대 옆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바라본다. 포크로 몇 번 찢어 보기도 하고 와인잔을 툭툭 쳐 보기도 한다.

하린: 오늘은 커피 아니네.

호윤: 와인 마셔보고 싶다며.

하린: 어차피 마시지도 못하는데.

하린이 와인잔을 몇 번 돌려보기도 하고 다른 와인잔에 부딪혀보기도 하다가 와인을 음식에 쏟아 버린다.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하린. 하린이 호윤의 옆 쪽으로 앉는다.

하린: 저러니까 더 예쁘지.

호윤: 응, 예뻐.

하린: 보지도 않고선. (조금 투명스럽게)

호윤: 안 봐도 예뻐.

하린이 호윤 쪽을 바라보다가 호윤의 옆쪽으로 몸을 수그린다.

하린: 나는?

호윤: 예뻐. (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본다.)

하린이 킬킬대며 몸을 일으킨다. 호윤의 두 뺨을 붙잡고서 제 쪽을 바라보게 만든다.

하린: 넌 이래서 좋아.

호윤: 사랑해.

하린: (웃으며) 넌 진짜 이상한 애야. 잘 자. 내일 또 올게.

호윤: 가지마...(점점 눈이 감기며)

호윤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잠이 든다.

S#2. 호윤의 방 (이른 새벽)

호윤이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다. 탁상 시계는 4시를 넘겼다. 호윤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들고 노래를 틀고서 내려놓는다. 여전히 멍하게 창 밖을 바라보는 호윤.